“계율 잘 짊어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난다”

다시 읽는 월운 대강백 명강설
(2006년 11월 25일, 봉선사)

6월 16일 원적에 든 월운당 해룡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강백이자 역경보살로 칭송받았다. 대강백의 법문을 다시 한번 게재한다. 이 법문은 2006년 11월 25일 현대불교신문사와 봉선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강백 법회에서 월운 대강백이 〈능엄경〉을 강설한 것이다. 월운 대강백의 강설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다.

정리=신성민 기자



월운 대강백이 2006년 11월 25일 봉선사와 본지가 공동주최한 대강백 법회에서 〈능엄경〉에 대해 강설을 하고 있다.

아난존자라는 덕 높은 분이 어쩌다가 마등가(摩登伽)라는 여자의 주술사(呪術師)에 홀려 들어갔는데, 그는 주술로 남자의 정신을 빼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평소 공부한 것이 좀 있었기에 잠시 최면에 걸렸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꿇어앉은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말합니다. “평소 경만 외우고 마음 닦는 공부를 못해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합니다. 부처님 말씀 외우는 데는 내로라할 정도였지만 모습이 아주 우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공부하는 법을 일러달라고 청함에 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방여래께서 보리를 이루신 묘사마타(妙奢摩他)와 삼마(三摩)와 선나(禪那)와 최초방편(最初方便)입니다.

〈능엄경〉 10권중, 제1권부터 제4권 중반까지는 사마타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중에도 제1권은 진(眞)과 망(妄)을 바로 알라는 법문이니,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는가. 마치 여관집에 무수한 사람이 드나들어도 주인은 늘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듯이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오가는 마음은 망상이요 사시사철 제자리에 변치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주인이며 참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권과 제3권 전체에서는 어디서나 불성(佛性)을 만나 깨달으라 하셨으니 색리교청(色裏膠淸) 해중함미(海中鹹味), 단청 속의 아교풀, 바닷물의 짠맛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가 여래장이라고 하시고, 나아가서는 오온(五蘊)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칠대(七大)가 원래 여래장(如來藏)묘진여성(妙眞如性)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권 후반부터 제8권 중반까지는 두 번째 물음 삼마에 답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흔히 수도분이라 부릅니다. 즉 견도분에서 터득한 진리의 세계를 실제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토막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초를 바로 잡으라 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수행의 기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심인심(審因心) 심업본(審業本)’ 입니다. 심인심이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하신 내용이요, 심업본이란 그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방법이 합당한가를 정확히 살펴 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요점을 바로 잡으라 입니다. 즉 공부하는 길, 또는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5권 초부터 제6권 초에 이르기까지 육진 등 25법이 모두 원통에 통하는 문이나 그중에도 깊고 원만하고 통한 길은 이근(耳根)밖에 없다고 소개해 주십니다.

셋째는 제6권 중반부터 내섭(內攝)이니, 삼학과 계율을 소개하셔서 자기의 힘으로 닦아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율종의 이론입니다.

넷째는 외섭(外攝)이니, 부처님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피력으로 해탈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밀교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불교의 종합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강조한 것 중 내 힘으로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계율인데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존경받길 바라면서 나쁘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관리 한다고 요란을 떨지만 몸 생긴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유달리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이 계율을 두 어깨에 잘 짊어지고 나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열반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지 · 봉선사 법회서 〈능엄경〉 강설
“능엄경, 본질적 믿음과 실천 설해”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佛法 마음서 떠나지 않는지 점검을”

두 번째로 자신을 닦아나가는 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믿고 수행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능엄주라 합니다. 능엄주를 믿고 외우면서 부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처님 가피력으로 능엄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은 계율을 잘 닦고, 사마타 삼마 선나 즉 정과 혜를 균등하게 닦고, 그리고 세 번째 능엄주를 외워서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형태든지, 어떤 경계에 가든지 무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도 경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하루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불자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점에 서서 나는 왜 불자인가?, 나는 왜 불자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부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아니 스물네 시간 부처님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을 마감할 무렵에 즈음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면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어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이해관계는 나에게 있는 법입니다. 이해관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것을 고치고 나가는 힘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신념입니다. 계를 설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계를 받은 뒤에 계를 잘 지키고, 계 설해 준 사람, 즉 계사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능엄경〉의 못다 한 이야기는 계를 받으면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가야할 고향이 분명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계 받는 일이고, 계를 받은 뒤에는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면 분명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월운 대강백을 그리며

“따라갈 수 없는 천재성 갖춘 선지식”

전강제자 지안 대종사 (통도사 반야암 회주)



월운 큰스님은 찾아뵐 때마다 소탈하고 자상하셨습니다. 당신의 학식이 뛰어나더라도 자기주장을 고집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늘 솔직한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제자로서 큰스님을 보면서 감탄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옛날부터도 경전에 대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해박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천재성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후학들을 가르칠 때마다 “한문경전을 깊이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문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 한문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후학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스님께서는 종종 안타까움을 내비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치문 · 사집 · 사교 · 대교로 이어지는 전통강원의 과정 속에서 후학들이 옛 스님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을 완간할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한문 실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부처님의 본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었기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뛰어난 스님께서도 한글대장경을 완간한 뒤 가끔씩 오역을 발견하시곤 교정해야 한다는 뜻도 전하셨습니다. 역경이라는 행위 자체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는 신념을 지키신 겁니다. 역경지침만 따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늘 당신의 공부를 챙겨 더 나은 풀이를 고민하셨지요.

이제 스승님을 직접 뵐 순 없지만 수많은 후학이 가르침을 받았으니 스승님의 향훈을 기리며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부처님

불경서당 제자 정진원 교수 (튀르키예 에르지예스대학)



스승 월운당 해룡 대강백은 영원한 청년이었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뵈었던 1994년 ‘불경서당’ 시절, 필자에게는 ‘봉선사 조실’ 도 ‘역경원장’ 도 ‘화엄종주’ 도 아닌 그저 소탈하고 장난기 가득한 위트로 넘치던 서당 훈장님이셨습니다. 그런 스승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세상 나이 아흔다섯, 스님 나이 일흔넷인 2023년 6월 하지 즈음. 여래 십호 마냥 나에게 남아있는 스님의 모습을 담담히 그려봅니다.

대강백은 늘 다경실에 앉아 오래된 스탠드를 켜놓고 공부하시던 ‘학승’ 이셨고, 불경서당 식구들에겐 가난한 불교학자 끼니 걱정을 해주시던 ‘담임 선생님’ 이셨습니다.

또한 구구절절 법문과 명언 가득한 경전을 암송하며 설법하셨던 ‘설법제일 부루나존자’ 이셨으며, 신세대 유행어를 배워 우리들 수업시간에 써보시며 맞는지 눈치를 보셨던 ‘얄개스님’ 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운 대강백은 제게는 부처님과 같은 존재셨습니다.

운허 · 월운 스님은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 으로 번역하는 원력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제 대강백의 뜻을 이을 우리의 원력과 발원은 무엇일까. 바로 조선대장경의 시작인 〈월인석보〉 역경입니다.

월운 대강백의 유지를 받든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지난 2021년부터 봉선사 불교대학에 월인석보 강좌를 열고 필자에게 3년째 소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봉선사 불경서당’ 의 맥은 그렇게 ‘월인석보 대학’ 으로 계승될 것이고, 세계만방에 ‘훈민정음’ 이 훌륭한 것은 세종이 쓴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쓴 〈석보상절〉 덕분이라고 고할 것입니다. 운허 스님과 월운 스님을 잇는 교종본찰 봉선사 사부대중의 힘으로 우리 모두 그 수기를 환희봉행할 것입니다.

